20개 종목 25명 태극마크 막바지 구슬땀

올림픽은 월드컵, 엑스포와 함께 세계 3대 이벤트 중 하나로 불린다. 바야흐로 제30회 런던하계올림픽 개막이 2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서히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번 런던올림픽에 한국은 22개 종목 240명의 대표팀을 파견한다. 한국선수단은 런던올림픽에서 '10(금메달 10개 이상)-10(종합 순위10위 이내)'을 목표로 막바지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중 광주·전남 지역출신이거나 소속으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는 모두 25명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5개 종목 6명의 선수가, 전남은 14개 종목 19명의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고향과 조국의 명예를 위해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지역 출신으로 런던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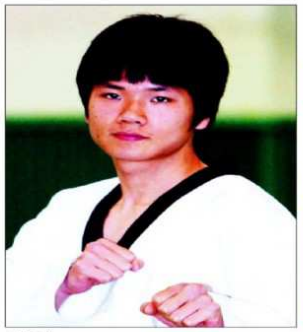
광주 기보배 양학선 등 6명 메달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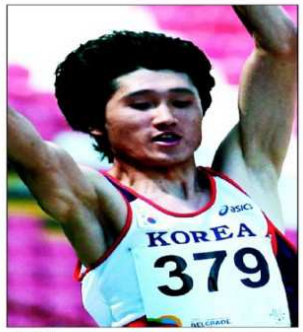
전남 이용대 차동민 등 19명 선전 다짐

기보배

이용대

양학선


차동민



김덕현

나아름

이은지

김승일

정지현

정다래

광주

광주는 총 6명의 선수가 대표로 선발됐다.

이중 양궁의 기보배(24·광주시청)와 체조의 양학선(20·한국체대·광주체고 졸업)이 력한 메달 후보로 꼽힌다.

특히 단체전과 개인전 우승을 노리고 있는 기보배가 2관왕에 도전한다.

세계랭킹 2위인 기보배는 최근 막바지 담금질로 금메달을 정조준하고 있다.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메달을 따내지 못했던 기보배는 최선을 다해 메달을 따내겠다며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

광주체고 출신의 양학선도 내심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또 광주체고 출신인 김희훈(21·한국체대·광주체고 졸업)도 양학선과 함께 출전한다.

육상의 김덕현(27·광주시청)은 세단뛰기에, 근대5종에 출전하는 황우진(22·한국체대·광주체고 졸업), 펜싱의 최은숙(26·광주 서구청)도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이용대는 정재성과 호흡을 맞춘 남자복식, 그리고 하정은과 함께 혼합복식 메달에 서 메달을 노리고 있다.

태권도의 차동민은 남자 80kg초과급에서 금메달에 도전한다.

차동민 역시 올림픽 2회 연속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레슬링의 정지현(29·삼성생명보험·해남)과 사이클의 나아름(22·나주시청)·이은지(23·나주시청), 육상 20km 경보 박칠성(30·삼성전자·영암), 50km경보 임정현(25·삼성전자·나주공고 졸업), 마라톤 이두행(31·고양시청·함평)도 런던행을 확정했다.

수영 평영 200m의 정다래(21·수원시청·부영여고 졸업), 펜싱 에뻬 박경두(28·익산시청·해남공고 졸업), 체조 김승일(28·수원시청·영광고 졸업), 유도 황희태(34·수원시청·목포), 조정 김명신(28·화천군청·나주), 사격 김병희(30·서울시청·동신대 졸업), 역도 지훈민(28·고양시청·완도수산고 졸업)과 김화승(27·한국조폐공사·신안)도 런던에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단체종목에서는 핸드볼의 용세라(25·서울시청·백제고 졸업)와 김온